

조경디자인캠프를 통해 본 비교과 조경 교육의 변화와 의미

안주연* · 김아연**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조경학과 ·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I. 서론

1994년 시작되어 올해로 23년을 맞이한 여름조경디자인캠프는 조경학회에서 주관하는 국내 최초이자 가장 오랜 기간 진행된 비교과 조경 교육 프로그램으로,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진행되었으며, 회당 많게는 92명의 학생이 수료하며 지금까지 1,151명의 학생이 거쳐 갔다. 특히 조경디자인캠프는 교육 운영과 교육 내용에서 정규교육과 차별성을 가지고 있으며, 학계와 업계의 징검다리의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비교과 활동은 정규 교육 과정을 제외하고, 학생들이 대학생활 동안 경험할 수 있는 모든 활동으로 학습생활, 여가활동, 근로경험, 교육훈련의 네 가지 범주로 정의할 수 있으며(백원영과 정한나, 2012), 그 하위 항목인 비교과교육은 학점을 부여하지 않는 대학 내의 의도적 교육 활동을 총괄하여 지칭한다(장상필과 김지일, 2015). 일반적으로 학부교육신진화사업과 같이 대학 내의 국고지원 사업을 비교과교육으로 칭하는 경우가 많으나, 전공 관련 협회나 학회, 연구원 등에서 별도로 참가비를 걷거나, 후원을 받아 비교과교육을 주최하는 경우도 있으니, 그 의미가 확장되어 받아들여질 필요가 있다. 비교과교육은 정규교과과정만으로 목표하는 학습 성과의 달성이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시 짧은 시간을 할애해서 그를 보완할 수 있는 역할을 하며(최진영 등, 2011), 정규교육이 지닌 평가의 제약에서 벗어나 다양성과 자발성이 보장된다는 점(이화선 등, 2012)과 커리큘럼이 상대적으로 탄력적이라는 점을 긍정적 특성으로 꼽을 수 있다. 현재 이루어지는 비교과교육들은 인성·소양 교육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어, 전공이나 교양 교육을 보완하기 위한 교과 연계 교육이 화두가 되고 있다(장상필과 김지일, 2015).

조경학과 학생들이 정규교과과정 외에 참여할 수 있는 비교과 활동으로는 학교별로 과에서 주관하는 학부교육신진화사업, 교내/외 조경 관련 동아리와 공모전, 환경과 조경 통신문, 녹색나눔 봉사단 등이 있으며, 조경디자인캠프는 비교과 활동 내의 비교과 교육 범주에 포함된다(그림 1 참조).

관련 연구의 동향으로 한국조경학회 창립 30주년 기념집과 한국조경백서 1972-2008에 체계적인 분석 내용보다는 조경디자인캠프의 일반적인 흐름이 담겨 있으며, 2002년 열린 학회를 위한 세미나 자료집에 1회부터 8회까지 진행된 내용을 바탕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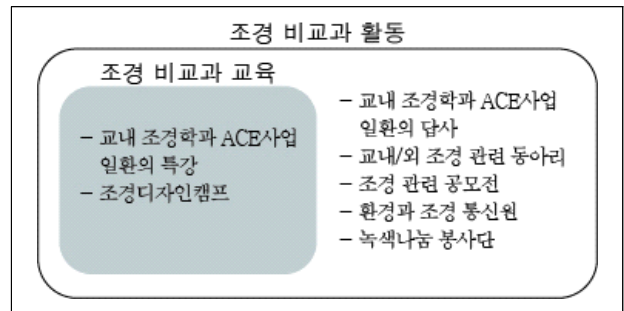


그림 1. 대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조경 비교과 활동

현황과 문제, 활성화 방안을 다룬 글(배정환, 2002)이 실렸다. 전반적으로 조경 정규교육을 다룬 연구에 비해 비교과 조경 교육인 조경디자인캠프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경향을 검토하는 연구조차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현시점에서 조경디자인캠프의 변화과정을 분석하여 앞으로 시대가 요구하는 조경 역량에 발맞추어 조경디자인캠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1994년 시행된 제 1회 여름조경학교(현 조경디자인캠프)부터 올해 2016년에 진행된 23회 조경디자인캠프를 대상으로 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환경과 조경』 76호(1994, 8월호)에서부터 329호(2016, 9월호)까지 ‘여름조경학교’, ‘조경디자인캠프’를 키워드로 하는 인터뷰 중심의 기사와 조경디자인캠프에 대한 라펜트, 한국조경신문의 기사를 내용분석하였으며, 관련 내용이 실린 문헌과 조경학회에서 발간하는 디자인캠프 자료집을 통해 보완하였다.

분석의 틀로는 비교과 조경 교육 중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조경학교의 분석 모형(신희정, 2016)을 재구성하여 프로그램 기획, 프로그램 운영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III. 분석 결과

표 1. 분석의 틀

영역	분석 항목	분석 내용
프로그램 기획	교육 목표	- 프로그램의 기획 목표 - 프로그램의 기대 효과 - 타 교육과의 차별성
	참가 대상	- 참여자의 제한 기준
	후원 체계	- 후원사 현황과 참가비, 교육 내용과의 관계
프로그램 운영	교육 장소	- 장소 선정 이유 - 교육 장소로서 적합성 - 교육 장소의 활용 범위
	교육 기간	- 프로그램 운영 시기 - 기간의 적절성
	참가 인원	- 참가 인원의 추이 - 스튜디오별 학습 인원의 적절성
	튜터	- 회차당 튜터의 명수 - 튜터의 소속
교육 내용	- 주제 설정 기준 - 스튜디오별 교육 내용 - 강의 내용의 매력성 - 기타 프로그램	

1. 프로그램 기획

1) 교육 목표

1회 여름조경학교(현 조경디자인캠프)는 실무중심 강의를 통해 대학교육과 실무 간의 차이를 해소한다는 명확한 교육 목표 아래 개최되었다(환경과 조경, 1994. 8월호). 학교에서 이론 중심으로 배운 학생들이 졸업하여 실무 기초를 익힐 때 많은 시간을 소비함으로써 회사 차원에서 많은 시간 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며, 학문에만 치우친 교육이 아닌 실무적인 기술과 문제 해결 능력을 배울 수 있는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대학과 실무에서 공통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많이 활용되지만, 대학에서 인적자원이나 기자재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캐드교육을 중요 교육 과정으로 포함했다. 실무중심의 기술적 교육이 주로 이루어진 1회와 다르게 2회부터는 조경에 관한 깊은 성찰과 다양한 시각, 창의적 실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조경의 시대적 위상을 재조명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한다는 교육 목표를 수립하였다. 그에 따라 참여한 재학생에게는 전공 보완적 수련의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직장인에게는 신선한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교육 목표는 '조경설계의 신 이론과 기법을 이해하고, 실무에서의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하계 특별교육과정으로 학생들의 자기개발 기회 제공과 조경분야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현재의 교육 목표로 이어졌다. 그러한 근본적인 교육 목표 아래에는 '한강을 입체적으로 재조망하고, 한강의 다양한 측면을 통합적이며, 창의적으로 탐색하는 기회를 제공한다'와 같이 주제에 따라 구체화된 회차별 세부 교육 목표가 세워져 왔다.

2) 참가 대상

처음 개최되었을 당시 대학에서 어느 정도 이론을 배운 학생들이 실무에 나가기 전 교육을 받는 과정이었기에 참가대상을 조경학과 3, 4학년으로 제한했었다. 하지만 조경 관련 직장인의 재교육, 관련 학과 학생 또는 일반인의 조경에 대한 이해도 향상으로 교육 목표가 확장되면서 모집대상 역시 확장되게 된다. 실무진과 일반인의 참여가 있었고, 관련 학과에서는 원예·산림학과 학생들의 참여도가 높았으며, 유학생, 원예학과 대학교수가 참여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19회부터 조경관련학과(부) 학생으로 참가대상이 축소됐으며, 20회부터는 조경학과 재학생으로 입학제한을 두었다가 22회부터는 다시 조경학과 및 관련 학과 학부생과 대학원생으로 참가대상을 확장하였다.

3) 후원체계

조경디자인캠프 2회가 되어서 후원체계가 마련된다. 삼성중앙개발, 동부ENG, 쌍용ENG, 우대기술단, (주)협신 5개의 업체의 후원을 시작으로 7회까지 증가하던 후원업체의 수는 8회에 3개로 줄어들며, 특별강좌와 저녁강좌가 대폭 줄어들게 된다. 그다음 해부터는 업체들이 다시 활발하게 후원활동을 하는 덕분에 13회 조경디자인캠프에서는 산학협동 차원에서 참가비를 후원사가 부담하며, 무료로 캠프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다음 회인 14회, 15회에서도 학생은 참가비가 무료로 유지되었으며, 일반인에게는 50만 원의 참가비가 부담되었다. 16회부터 지금까지는 참가자 모두에게 30만 원의 참가비가 똑같이 부담되어오고 있다.

2. 프로그램 운영

1) 교육 장소

지금까지 서울시립대학교가 총 7번으로 개최 횟수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서울대가 6회, 경희대 수원 캠퍼스가 4회, 동국대 서울 캠퍼스가 2회로 많았다. 16회 조경디자인캠프 개최 장소였던 계원디자인예술대학과 강릉원주대학은 각각 1회로 하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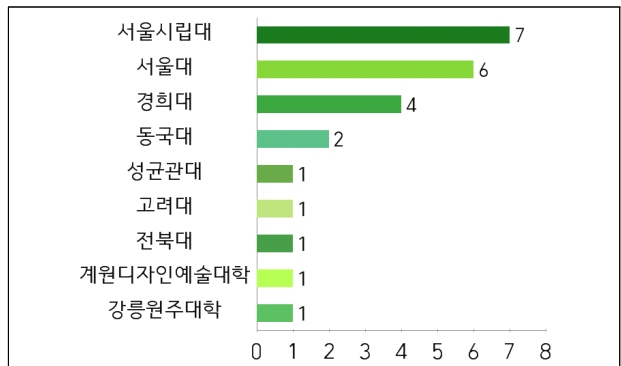


그림 2. 교육 장소

다. 개최 장소 대부분이 수도권 소재의 대학이었는데, 학생의 경우 숙박비 별도로 기숙사가 제공되지만, 실무에서 활동하는 튜터와 특강자의 경우 교통의 접근성이 어려우면 참가가 힘들고 그 점을 고려한 것으로 추정된다.

2) 교육 기간

1회에서 3회까지 13일 동안 진행되었던 조경디자인캠프는 4회, 5회는 하루가 늘어난 14일 동안 진행되었다. 6회부터 23회까지는 다시 2일이 줄어든 12일 동안 진행되어 평균 기간은 약 12.3일이다. 개최 시기로 7월 초에서 7월 중순에 꾸준히 개최되어 오다가 올해 23회만 한 달 정도 늦은 8월 초에 개최되었다. 만족스러운 설계안을 도출하기에는 기간이 짧다는 의견이 꾸준히 있었다.

3) 참가인원

조경디자인캠프에 참여한 학생은 중복으로 참여한 학생을 포함하여 총 1,151명으로 한 회당 평균 약 50명의 학생이 참여하였다. 가장 많이 참여했던 6회에는 92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으며, 가장 참가율이 저조했던 9회에는 23명이 참가하였다. 9회의 개최지는 전북대로 장소가 지방이라는 점과 당시 홍보가 뒤늦게 이루어졌다는 점이 참가율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추측한다. 10회에 다시 61명으로 회복세를 탄 뒤에 가장 최근 4개년도인 20회부터 23회까지 한 스튜디오 당 15명을 정원으로 3개의 스튜디오로 진행을 해오면서 43~45명의 참가자 수를 유지하고 있다.

4) 튜터

스튜디오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1회를 제외한 나머지 캠프에서 중복 참여를 고려하지 않고, 총 160명의 튜터가 참여했으며, 그 중 학계 43명, 업계 117명으로 실무진이 튜터로 많은 활약을 펼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 회당 평균 7.2명의 튜터가 참여하였다.

5) 교육 내용

주제에 있어서 9회까지는 조경습작의 형식으로 하나의 큰 주제 없이 캠프가 진행되었다면, 10회부터는 시대적으로 쟁점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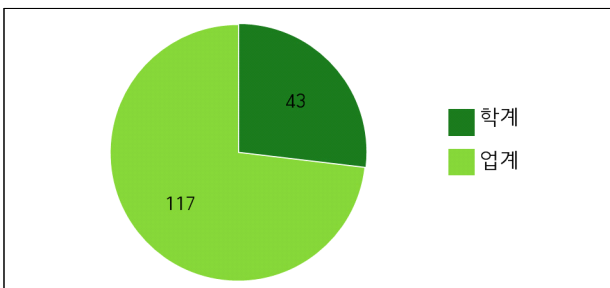


그림 3. 튜터 현황

표 2. 주제의 변화

회	연도	주제
10	2003	도시인프라와 도시경관(Infrastructure Landscape)
11	2004	매체로서의 경관(Landscape as Media)
12	2005	조경·생태-그 부드러운 힘
13	2006	미래형 주거단지설계
14	2007	도시의 수경관설계
15	2008	한국성 - 그 의미와 창조적 계승
16	2009	ZERO CITY__ 녹색성장시대의 조경설계
17	2010	URBAN GARDEN(도시 속 정원이야기)
18	2011	예술을 유혹하는 조경(Art in Landscape)
19	2012	자연에 놀다, 생각에 빠지다
20	2013	창신동 땅, 삶, 시스템의 경관
21	2014	서울성곽,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22	2015	용산공원, 경계를 넘어
23	2016	한강, 도시, 문화, 방재, 생태계의 하이브리드로서의 물

되는 주제나 대상지, 깊은 성찰이 필요한 조경의 영역, 학교에서는 전문적으로 배우기 어려운 것들을 주제로 선정하였다.

스튜디오 형식이 아닌 실무중심의 강의 위주로 진행되었던 1회 여름조경학교에 참여했던 학생은 '설계수업에서 팀을 구성하여 부지의 다각적인 접근을 해보지 못한 점'을 아쉬움으로 꼽았다(환경과 조경, 1994, 9월호). 이를 반영하여 2회부터는 스튜디오 수업이 신설되어 학생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하였다. 4회부터 9회까지는 큰 주제가 없어 서로 관련 없는 스튜디오가 진행되었다. 연속으로 같은 주제와 튜터로 진행되기도 하였다. 연속된 주제로는 환경조형물(3번 연속), 광장 및 가로 환경(4번 연속), 주거단지 내 조경(5번 연속)이 있다. 5회 여름조경학교에서는 스케치 및 표현 기법, 내역서 작성요령 스튜디오를 공통선택 영역으로 두어 수강생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조경실무를 체험하는 기회가 있었다. 10회부터는 큰 주제에서 가치를 뺀 관련 있는 소주제들로 스튜디오가 진행되었다. 스튜디오별 튜터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으로 설계안을 발전시켜 나갔는데, 양질의 크리틱을 받는데 제한적일 수 있어 20회의 경우 스튜디오 간의 교차 리뷰의 기회를 통해 타 스튜디오 튜터와의 교류의 시간이 주어졌다.

지금까지 총 76개의 스튜디오가 진행되었으며, 한 회에 평균 약 3.5개의 스튜디오가 열렸다. 12회까지는 스튜디오 수에 변화가 있었다면 13회부터는 스튜디오 개수가 3개로 고정되었다. 정원이 45명으로 자리잡아감에 따라 스튜디오당 15명의 학생 수도 고정되었다. 수강 인원의 폭이 최대 4배의 차이가 있는 등 회마다 변화가 있었는데, 그에 비해 스튜디오 수가 대부분 3, 4회로 차이가 없다는 것은 교수자와 학생과의 소통이 중요시되는 스튜디오 수업(이준석, 2014)에서 학습 효과를 저하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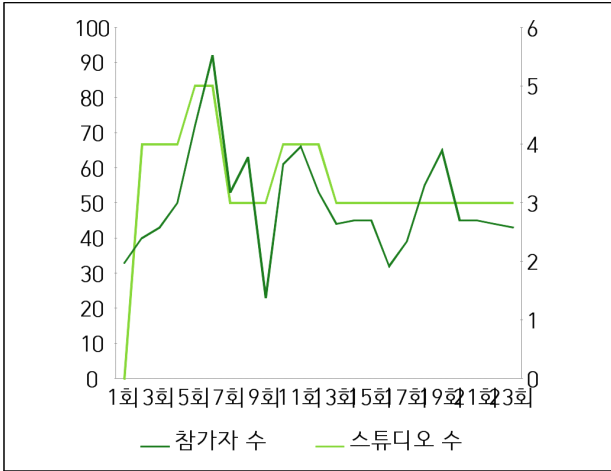


그림 4. 참가자 수와 스튜디오 수의 추이

강좌는 크게 특별강좌와 저녁강좌로 나누어진다. 특별강좌는 오전에 진행되며, 12회까지 조경의 외연 분야의 시각들을 다양하게 살펴보았다. 13회부터 지금까지는 회차별 주제와 연관된 강좌가 열려 깊이 있는 스튜디오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저녁 강좌는 대표적인 조경설계사무소의 사례 작품 발표시간으로 각 사무소의 특색을 살펴보는 시간이자 우리나라 조경실무 일선의 실제적인 성과와 과제를 보여주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7회에 캠프에 참여한 한 학생은 저녁강좌가 실무진의 경험을 들을 수 있어서 졸업을 앞둔 학생들에게 취업에 도움을 주는 안내 역할을 하며, 가장 좋았던 프로그램으로 꼽기도 하였다(환경과 조경, 2000, 8월호). 하지만 점차 후원업체 소개시간으로 바뀌었으며, 20회부터 지금까지는 저녁강좌는 이루어지지 않고, 오전 시간에 특별강좌만 열리며, 오후에는 스튜디오 위주로 진행되어왔다.

설계스튜디오, 특별강좌, 저녁강좌, 작품 평가, 대상지 답사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기획되었다. 캠프 초창기에는 창덕궁 비원, 경복궁, 회원 등 전통 조경공간으로의 답사가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며, 충북 괴산군의 은티마을과 경북 문경의 대야산을

등정하며, 학생 간의 유대관계를 도모하는 활동도 이루어졌다. 또한, 농장, 온실, 수목원, 공원, 마을, 설계현장 등으로의 답사를 통해 책으로만 보던 것들을 실제로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그 밖에도 업체탐방을 통해 실무 현장을 경험하는 시간, 누드스케치, UCC 제작 미션 등 흔히 쓰는 조경의 매체를 넘어서는 표현 기법들을 익히는 시간을 가졌다.

IV. 결론 및 시사점

현재 조경디자인캠프는 특정 주제의 설계스튜디오를 깊이 있게 체험하는 데 있어서 이론수업과의 지식연계가 가능한 구성을 갖추고 있지만, 조경이 종합학문인 만큼 초기 조경디자인캠프가 전달하고자 하였던 조경의 관련 분야와의 관계, 예술적·인문학적 이론들도 다뤄질 필요가 있다. 또한 그동안 기획된 프로그램들을 되짚어보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은 되살릴 필요가 있으며, 비교교육으로서 정규교과과정과의 관계를 고찰하여 구체적인 교육목표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매회 만족도 조사를 통해 학생들이 원하는 바를 반영하는 피드백의 과정과 캠프를 통한 인적 네트워크를 홈커밍데이와 같은 행사로 지속적으로 유지해나갈 방법도 마련해야 한다. 성과물과 강의내용을 후학들을 위해 학회 차원에서 열람이 가능하도록 구축해놓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이다.

참고문헌

1. 김아연(2015) 조경교육에 있어 학습자 중심 스튜디오 수업의 쟁점. 한국조경학회지 43(1): 139-157.
2. 배정환(2002) 여름조경학교의 현황과 문제, 그리고 활성화 방안. 한국조경학회 추계학술논문발표회 논문집.
3. 조세환, 홍광표, 서주환, 신익순, 이상석, 배정환(2008) 한국조경의 도입과 발전 그리고 비전. 서울: 환경조경발전재단.
4. <http://www.lak.co.kr/>
5. <http://www.lafent.com/>
6. <http://www.latimes.kr/>